

메이저 경기침체와 원유가하락으로 수익률 저조

국제 석유자본(메이저)의 올해 1/4분기 수익은 原油(Crude oil)와 천연가스(Natural gas)의 가격하락과 공급과잉등으로 지난해 4/4분기에 이어 저조한 경영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전망은 Zacks Investment Research의 에너지부문을 포함하는 산업별 경영실적 조사자료와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의 1992년 1/4분기 경제동향 전망에 따른 것이다.

즉 1990년 4/4분기 이래 석유가격은 배럴당 10달러 정도가 하락했고, 탐사수익과 생산수익 또한 현저한 하락세를 보였으며, 공급과잉으로 인한 석유화학제품의 수요감소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요인은 메이저의 휘발유정제 감소와 마케팅의 부진으로 이어져 석유화학제품의 수요감소등으로 전년동기대비 메이저의 수익은 급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메이저중 Royal Dutch/Shell社는 '91년 순이익이 전년대비 34%의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4/4분기 총수입도 전년동기대비 60%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Chevron社 역시 노동력의 삭감과 Port Arthur, Texas 정제공장의 생산축소로 인한 2억4천4백만달러의 비용지출등으로 전년수익은 상당한 수준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전개발과 설비 및

※1/4분기 수익 전망

에너지	1/4분기 수익증가율(%)	1992년 수익증가율(%)
석 탄	27.4	68.4
석유개발	35.4	54.2
메 이 저	-38.3	7.1
기타석유사	-20.2	57.9
유전장치	45.8	35.7
파이프라인	3.9	39.3

서비스 부문에서도 계속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으나 타부문에 비해 상대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외유전개발회사는 국내의 경기침체를 어느정도 상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alliburton社는 국내유전사업의 재조정과 축소로 83백만달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출했으며 Schumbeger社는 반대로 투자이익등으로 131백만달러의 신장세를 기록했다.

또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회사들은 경비절감 노력에 힘입어 수익이 호전되고 있다.

Panhandle Eastern社는 작년의 손실경영에서 이익실적으로 전환했고, Enron社 역시 분리된 전력공장의 병합과 효율적인 장기가스계약 등으로 활황기를 맞이했으며 Transco Energy社는 경영조직의 재구조화와 재편등으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나타낸 것으로 기록됐다.

산업관계자 및 분석가들은 이와같은 분석을 기초로 올해 1/4분기중에는 석유산업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시장성장의 계속되는 침체로 올해의 메이저 수익률 증가 또한 완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메이저의 경영실적

	1991 4/4분기	1990 4/4분기	증감률(%)
Amoco Corp	153,000	538,000	-72
Atlantic Richfield	268,000	566,000	-53
Chevron Corp	39,000	633,000	-94
Exxon Corp	1,120,000	1,555,000	-28
Mobil Corp	401,000	652,000	-38
Phillips Petroleum	79,000	237,000	-67
Sun co	-35,000	18,000	...
Texaco Inc	324,000	388,000	-16
Unocal Corp	-16,000	38,000	...
USX-Marathon Croup	-229,000	216,000	...
計	2,104,000	4,841,000	-57